

## 지평선(地平線) 향기를 찾아서

강 오 식  
자유기교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김제평야의 광활한 들녘이다. 그래서 김제(金堤)는 지평선(地平線)의 고장으로 자랑스럽게 불리면서 매년 가을이면 아름다운 황금별관을 무대로 ‘지평선 축제’를 펼치고 있다. 김제는 일찍이 도작(稻作) 문화의 발상지로 풍요로움과 문화유산의 멋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난 곳이다. 특히 한국의 미륵불교를 대표하는 천년고찰 금산사(金山寺)를 축으로 하는 찬란한 불교문화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농경 수리유물들은 김제만이 갖고 있는 자랑이다

노령산맥의 중봉 모악산(母岳山)은 해발 793m로 김제시 금산면과 완주군 구이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명산이다. 모악산 꼭대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어 모악산이라 했다고 한다.

모악산에 오르면 한국의 곡창인 ‘징계 맹경 외아미들’, 즉 동진강과 만경강 사이에 펼쳐진 김제 만경평야가 발 아래에 아스프레하게 펼쳐진다. 그 너머 서쪽으로는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서해바다, 남쪽으로는 내장산이 가물가물 눈에 들어온다. 그뿐 아니라 동쪽으로는 구리와 운암저수지가 보이고, 북쪽으로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호남평야의 들녘을 만드는 생명의 물이 바로 이곳 모악산 꼭대기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또한 대가람 금산사를 비롯하여 많은 암자와 신흥종교들을 포근하게 품에 안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모악산은 사시사철 새로운 얼굴로 변하여 삶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금산사(金山寺)는 모악산의 남쪽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은 전라북도내 최대의 사찰로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창건에 관해서도 많은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고승을 배출하면서 불교계의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임금의 복을 비는 사찰로 처음 지어졌다. 창건 당시에는 소규모 사찰이었으나 신라 혜공왕 2년(766)에 진표율사에 의해 중창되면서 미륵신앙, 즉 신라 오교(五敎)의 하나인 법상종의 근본 도량으로서 전북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해 졌다.

우리역사는 너무 험난했고 사람들은 난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구해줄 누군가를 기다렸다. 절실하게 기다렸던 신이 바로 미륵불이다. 즉 미륵신앙은 과거와 현세를 잇는 미륵불로서 미륵에 대한 신앙이다. 그것이 진표에 의해서 체계가 갖추어졌는데, 그는 금산사에 출가하여 스승인 승제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참회 수행을 하여 지장과 미륵 두 보살에게 직접 수기를 받았다. 미륵에게서 점찰법을 받은 진표율사는 금산사와 속리산, 명주 등지의 여러 지방에서 널리 교화를 펼쳐 명성을 떨친 후 금산사를 중창한 것이다.

금산사는 후삼국시대 말기인 935년 후백제의 왕 견훤이 그의 아들 신검에 의해 간힌 곳이기도 하다. 견훤이 왕위를 넷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장남인 신검이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 미륵전 지하실에 가두고 장사 30명으로 지키게 했다. 그러나 견훤은 장사들을 유인해 술을

먹이고 3개월만에 탈출하였다. 나주에 가서 왕건에게 항복하고 힘을 빌어 아들 신검을 치니 후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패망한 뒤 백제 유민들의 항쟁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던 금산사는 정유왜란 때 크게 전소되어 선조 34년부터 재건해 35년 후인 인조 13년(1635)에 새로운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금산사의 상징인 미륵전(彌勒殿)은 국보 제62호로 아주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즉 외관상으로는 팔작지붕의 3층 건물이지만 내부는 각 층간의 구별 없이 통층(通層)으로 되어있다. 현재 이 미륵전 안에는 미륵 3존 입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중앙 불상의 높이는 11.82m, 좌우의 불상은 8.8m나 되는 큰 규모다.

김제는 한마디로 벼와 쌀의 고장으로 농경문화의 중심지이다. 벼와 쌀을 빼놓고는 김제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 기름지고 맛있는 쌀을 생산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벽골제(碧骨堤)를 만들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김제시내에서 화호를 지나 부안(扶安)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벌판을 달리다 보면 약 6km 지점에 월촌동과 부량면의 포교(속칭 갯다리)에 이른다. 여기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명금산 북단 지점까지 엇비슷하게 뻗혀 있는 독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독이 바로 그 유명한 벽골제 제방이다. 이 독의 중간 지점에 고색창연하고 자태 의연한 2개의 수문석주(水門石柱)가 1,700여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이 독과 수문석주는 벽골제와 함께 사적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벽골제는 우리나라에서 축제(築堤)된 대규모의 저수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의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벽골제의 축조 시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각각 신라 흘해왕 21년(330)과 20년(329)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김제 지방은 백제의 영역이었었고 백제와 신라는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두 기사는 착오로 인하여 백제의 사실이 신라의 역사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벽골제는 백제 연대로 치면 백제 비류왕 27년에 축조되어 지내오면서 몇차례 보수공사가 있었다. 고려시대 때 중수를 거쳐 다시 조선조에 이르러 태종 15년에 벽골제를 대대적으로 보수할 때 동원된 인원만 만여명이 넘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벽골제의 수원은 원평천과 두월천 수류(水流)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의 길이가 3.3km이고 몽리면적이 9천 8백 40결(약 1만 ha)이며 수문만도 5개가 있어 김제 만경평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읍, 부안, 신태인까지 공급했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한 뒤 문화말살 정책의 하나로 독의 한 가운데를 파서 수로를 만드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독은 허리가 잘려 둘로 갈라졌다. 수문 3개도 흔적이 없이 사라졌지만 [장생거]와 [경장거] 두 수문의 돌기둥만이 다행스럽게 남아있어 땅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서해의 명승지 망해사(望海寺)는 진봉면 신포리 해발 72m의 진봉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천혜의 경승을 자랑한다. 서해 연안에서 가장 바다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망해사는 심포 어항 풍경과 서해 낙조(落潮) 등의 아름다움이 보는 이의 눈을 빼게 만든다. 망해사 뒷산 전망대에 오르면 확 트인 시야 만큼 가슴이 시원해진다. 서쪽과 서남쪽은 망망대해요, 동쪽으로는 우리나라 제일의 곡창지대인 김제 만경평야가 아스라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전망대 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사발을 엮어놓은 듯한 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산이 심포산으로 그 꼭대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봉수대가 있다. 봉수대는 연기와 횃불로 적의 내습을 알리는 통신시설이다. 심포항은 크고 작은 어선들이 오색깃발을 펴리며 드나들던 아담한 어항으로 한 때는 짝조롭힌 갯내음을 맡으며 갈매기의 추억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즐기려던 사람들로 붐볐다.

지금 심포항은 횃집단지가 조성되어 싱싱하고 물 좋은 생선회를 즐기려는 사람들과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휴일이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심포항의 서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개펄에는 대나무처럼 생긴 죽합(竹蛤)과 임금님게 수라상으로 올렸다는 자연산 대합(大蛤)이 자라고 있어 식도락가들이 많이 찾는다. 이처럼 망해사는 그 주변이 군사적 요새지로서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명승지로 유명한 곳이다. 